논어 14편 헌문 30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君子道者三，我無能焉：仁者不憂，知者不惑，勇者不懼。」子貢曰：「夫子自道也！」

독음 · 자왈 군자도자삼 아무능언 인자불우 지자불혹 용자불구 자공왈 부자자도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. 공자가 자신은 못 한다고 하자 자공은 바로 스승의 모습이라고 답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君 임금 군 / 道 길 도 도

者 놈 자 / 三 석 삼 삼 / 我 자기 아 아 / 無 없을 무 무

能 능할 능 능 / 焉 어찌 언 언 / 仁 어질 인 인 / 不 아닐 불

憂 근심 우 우 / 知 알 지 / 惑 미혹할 혹 혹 / 勇 날랠 용 용

懼 두려워할 구 구 / 貢 바칠 공 공 / 夫 지아비 부 부 / 自 스스로 자

也 어조사 야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